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영어와 한국어의 전제 용법에 대한 비교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이 인 선

2018년 2월



영어와 한국어의 전제 용법에 대한 비교 연구

지도교수 양 용 준

이 인 선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이인선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7년 12월

A Comparative Study on the Usage of Presupposition in English and Korean

Inseon Lee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Yong-Jo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February 2018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II. 전제의 이론적 배경과 정의	3
2.1 이론적 배경	3
2.2 전제의 정의	7
2.2.1 의미적 전제	7
2.2.2 화용적 전제	8
III. 영어의 전제 유발체	12
3.1 의미적 전제 유발체	12
3.1.1 어휘적 유발체	12
3.1.2 통사적 유발체	15
3.2 화용적 전제 유발체	21
3.2.1 의문문	21
3.2.2 명령문	22
IV. 한국어와 영어의 전제 유발체 비교	23
4.1 의미적 전제 유발체	23
4.1.1 어휘적 유발체	23
4.1.2 형태적 유발체	26
4.1.3 통사적 유발체	32
4.2 화용적 전제 유발체	35
4.2.1 높임법 표현	35
4.2.2 의문문	36
4.2.3 명령문	37

V. 영어와 한국어의 전제 취소와 투사 문제 비교	39
5.1 전제 취소	39
5.2 전제 투사	44
5.2.1 승계되는 경우	44
5.2.2 승계되지 못하는 경우	46
5.2.3 필터(filter)	51
VI. 결론	56
참고문헌	59
ABSTRACT	62

I. 서론

전제(presupposition)는 어떤 문장이나 발화가 가진 전체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의미 관계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어떤 문장이나 발화를 접할 때, 그 기저에 전제 되는 내용을 알아야 전체 문장이나 발화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정보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고, 같은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끼리 공감하고 있는 전제를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대화에서 여러 문장을 일일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의 문장에서 다른 의미를 추론하게 함으로써 언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전제이다.

전제는 발화 내에서 초점이 되는 단언(assertion)에 대하여 배경 정보의 기능을 한다. 김경애(2012)는 전제에 대해서, 화자가 대화자들이 사실로 여기거나 당연히 받아들이며 적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 대화의 바탕이 되는 정보로서 발화의 초점을 이루는 단언에 대비하여 배경 정보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성범(2002)은 전제에 대하여, 함축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주어진 맥락(context)이라는 자원을 이용하여 언어의 외연을 넓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함축과는 또 다른 원리에서 작동하는 언어에 반영되는 인간의 추론 과정이며, 문장이나 발화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정되어야 하는 배경적인 내용을 그 문장이나 발화의 전제라고 하였다.

영어에서 전제는 철학자 Frege(1892)가 자연언어의 지시적 표현은 그로써 가리키는 지시물의 존재를 전제한다고 지적한 이래 많은 언어학자들의 연구가 있어왔다. 전제에 대한 정의, 전제 표현의 여러 가지 유형, 전제의 취소, 복문에서의 투사(승계) 문제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고, 최근에는 전제 투사 문제에 대하여 완벽한 설명이 제시되지 못하면서, 대화시에 청자가 전체적 맥락을 수정하여 이 정보를 새로이 맥락에 추가하거나 적절한 해석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동기저에 추가하는 전제의 수용에 대한 논의가 초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언어 사용에 있어서 전제라는 기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두 언어에서 보이는 전제 양상의 차이 때문에 영어의 전제를 이해하는데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Paul doesn’t know that Mary passed the test’라는 문장에서 내포문의 전제 (Mary가 시험에 합격했다)가 그대로 전체 문장에 유지되는데, 이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해석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첫째는 ‘Paul은 Mary가 시험에 합격한 것을 모른다’로 해석하여 영어와 마찬가지로 내포문의 전제가 그대로 전체 복문에 승계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Paul은 Mary가 시험에 합격했는지 모른다’로 해석되어 내포문의 전제가 전체 복문에 승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영어 문장을 접할 때 전제 성립 여부에 대해 바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여러 가지 전제를 유발하는 표현과 복문에서의 전제 취소 및 승계 문제에 있어서 영어와 한국어의 경우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어와 영어 두 개 언어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또한 두 개 언어에서 보이는 전제의 특징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전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고의 목적이 있다.

그런데 전제는 적어도 문장의 실제적 언어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하지만 맥락적 요소들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단지 의미론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전제 용법에 대해서 크게 의미적 전제와 화용적 전제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2장에서 전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함께 전제의 정의를 의미적 정의와 화용적 정의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3장에서는 영어에서의 여러 가지 전제 유발체에 대해서 의미적·화용적 전제로 나누어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한국어에서의 전제 유발체를 의미적·화용적 전제 유발체로 나누어 알아 보면서 이를 영어의 전제 유발체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전제에서 가장 큰 특징인 전제 취소와 전제 투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어와 한국어의 경우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II. 전제의 이론적 배경과 정의

2.1 이론적 배경

‘전제’는 철학적 논쟁, 특히 지시(reference)의 본질과 지시 표현(referring expressions)에 대한 논쟁에서 시작된다. 그런 문제는 논리 이론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자연 언어에서의 지시 표현이 제한된 논리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에서 나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첫번째 철학자는 현대 논리학의 개척자인 Frege(1892)이며, 전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If anything is asserted there is always an obvious presupposition that the simple or compound proper names used have a reference. If one therefore asserts ‘Kepler died in misery’, there is a presupposition that the name ‘Kepler’ designates something.

(Frege, 1892(1952: 69))

즉, 어떤 것이든지 단언되면, 항상 사용된 고유명사는 지시를 갖고 있다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서 ‘Kepler died in misery’라고 하면 여기에는 그 이름 ‘Kepler’가 어떤 것을 지정한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Frege는 ‘Kepler’라는 이름이 어떤 것을 지정한다는 전제는 ‘Kepler died in misery’의 긍정문과 이에 대한 부정문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Frege는 전제 이론을 첫째, 지시구(referring phrases)와 시간절은 그들이 사실상 지시를 하는 결과에 대해 전제를 수반하며, 둘째, 한 문장과 그 부정문은 동일한 전제 집합을 공유하고, 셋째, 단언 또는 문장이 참 혹은 거짓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전제는 반드시 참 또 만족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Russell(1905)은 Frege의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아래 예문 (1)과 같이 적절한 지시체(referents)가 없는 문장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문제를 제기한다.

(1) The King of France is wise.

Frege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의미(sense)와 지시(reference)를 구분함으로써 답을 찾았는데, 즉, 이러한 문장들은 지시체가 없어서 진리치를 갖지 못하지만 그래도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Russell은 Frege의 견해는 변칙을 유도한다고 하면서 유명한 기술 이론(theory of descriptions)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The King of France’는 자연언어에서는 주어(subject)지만, 논리형식에서는 논리적 주어(主語)가 아니고 명제의 연결(conjunction)에 해당한다. 그래서 Russell은 위 문장 (1)이 단순히 아래 (2a)처럼 주어-술어 공식이 아니며(여기서 ‘King’은 ‘King of France’를 말한다.), (2b)처럼 3가지 단언(assertion)의 연결으로 분석한다.

(2) a. Wise(the King)

b. $\frac{\exists x (\text{King}(x))}{\textcircled{1}} \ \& \ \frac{\sim \exists y((y \neq x) \ \& \ \text{King}(y))}{\textcircled{2}} \ \& \ \frac{\text{Wise}(x)}{\textcircled{3}}$

즉, 위 예문 (1)은 단순히 (2a)처럼 “프랑스의 왕은 현명하다”가 아니라, (2b)처럼 ‘①어떤 실체(entity) x가 있는데, x는 프랑스의 왕이고, ②x와는 다른 y 라는 프랑스 왕은 없으며, ③그 x는 현명하다’라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문 (1)에 들어있는 어구 ‘The King of France’는 Russell식의 전개에 의하면, 그 개체의 존재를 단언한다. 즉, Russell은 예문 (1)은 ‘프랑스에 왕이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프랑스에 왕이 없고, (2b)의 분석에 따라서 예문 (1)은 세 가지 내용이 모두 참일 때만 참이 되므로 결국 (1)은 거짓이 된다.

그런데 Russell 분석의 한 가지 특별한 장점은 오늘날 ‘영향권의 중의성(scope-ambiguities)’이라 불리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래 부정문은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The King of France is not wise.

첫째, 프랑스에 왕이 있고, 그는 현명하지 않다는 것과, 둘째, 프랑스에 왕도 없고, 현명하지도 않다는 것인데, 여기서 두 번째 해석만이 아래 (4)와 관련이 있다.

(4) The King of France is not wise - because there is no such person.

그리고 Russell의 위 분석 (2b)는 부정(negation)이 이러한 중의성을 포착하는 두 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5) $\sim (\exists x (\text{King}(x) \ \& \ \sim \exists y((y \neq x) \ \& \ \text{King}(y)) \ \& \ \text{Wise}(x)))$

(6) $\exists x (\text{King}(x) \ \& \ \sim \exists y((y \neq x) \ \& \ \text{King}(y)) \ \& \ \sim \text{Wise}(x))$

위 (5)는 ‘x는 프랑스의 왕이고, x와 다른 y라는 프랑스의 왕은 없고, x는 현명한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으로서, 넓은 영향권 부정이며, 프랑스의 왕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위 (6)은 ‘x는 프랑스의 왕이고, x와 다른 y라는 프랑스 왕은 없고, x는 현명하지 않은 그런 실체 x가 있다’는 것으로서 좁은 영향권 부정이며, 단지 그에게 적용된 술어, 즉 ‘현명하다’는 것만 부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Strawson(1950)은 Russell과 다른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그는 문장(sentence)과, 참 또는 거짓인 진술(statements)을 만들어내는 문장의 사용(use of sentence)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Russell식의 전개에 의할 때 (1)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분명히 참 또는 거짓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Strawson의 견해에 따르면,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없고, 오직 진술만이 참 또는 거짓이다. 그래서 진술 (1)은 1670년에는 참이고, 1770년에는 거짓이며, 1970년에는 그 진술이 참이라고 또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1970년에는 프랑스 왕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냐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전제되는 지시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진리치 공백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Strawson은 (1)의 경우 아래

(7)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7) There is a present King of France

Strawson에 따르면 위 (7)은 (1)의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전제조건(precondition)이며, 그는 이 관계를 전제(presupposition)라고 불렀다. 그는 이것은 함의와는 다른 특별한 추론이며, Russell의 빈약한 존재 분석(existential analysis)에 의해 포착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했다. 그리고 Strawson(1952)은 이를 좀 더 형식화해서, '진술 B가 진술 A의 참 또는 거짓에 대한 전제조건일 때만(iff) A는 B를 전제한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Strawson은 한정적 기술의 복합적인 논리 형태를 반대함으로써 Russell과 의견을 달리했고, 그 결과 전제 자체가 삭제되는 (4)와 같은 부정문을 설명할 수 없었다. 보통 Strawson의 견해에 따르면 부정문은 발화되었을 때 그것의 전제를 보존하여 'wise'만 부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Russell은 복잡한 논리형식에 의해서 부정문에 대해 두 가지 영역을 지적할 수 있었지만 Strawson은 (4)처럼 전제가 부정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반면 Strawson과 Frege는 한정적 기술에 대한 Russell의 접근 방식에 반대하는 매우 비슷한 입장을 취한다. 즉, 전제이론은 예를 들어 우리가 (1)과 같이 발화했을 때, 특정 개체가 현명하다고 하는 전경 단언(foreground assertion)이 있고, 또한 그러한 개체가 존재한다는 함축은 그 단언이 말이 되도록 하는 배경 가정(background assumption)이라는 우리의 언어적 직관과 일치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Strawson과 Frege는 이러한 접근방식을 따르는데, Russell은 전제 부분도 하나의 단언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

2.2 전제의 정의

앞 장에서는 전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제는 크게 의미적 전제와 화용적 전제의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발전되었는데, 다음에서 의미적 전제와 화용적 전제의 정의 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2.1 의미적 전제

의미적 전제는 문장의 진리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문장이나 명제 간의 참과 거짓을 분석하는데 주목하며, 여기서 전제는 어떤 문장의 진위가 성립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전제가 참이 될 때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 된다. 이러한 의미적 전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김경애, 2012 재인용)

- (8) a. 문장 S가 진위 판별을 받기 위해서 p는 참이 되어야 한다.
- b. 문장 S의 전제는 S의 부정문에서도 참이 되어야 한다. 즉, S가 참일 때 전제 p는 참이며 S가 거짓일 때도 p는 참이 된다.

따라서 의미적 전제는 전제를 포함하는 문장이 부정이 되어도 유지가 되며, 부정문 검사(Negation test)는 의미적 전제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이렇게 모문이 부정되어도 살아남는 전제의 특성은 전제와 함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아래 예문 (9)를 보자.

- (9) a. John's grandfather has three cows.
- b. John has grandfather.
- c. John's grandfather has two cows.
- d. John's grandfather has not three cows.

위 예문에서 (9a)는 (9b)를 전제하고 (9c)를 함의한다. 그러나 (9a)를 부정한 (9d)는 (9b)를 그대로 전제하지만, (9c)를 함의하지 못한다. 즉, 전제는 함의와

달리 모문이 부정되어도 그대로 살아남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의미적 전제에서는 이렇게 전제를 포함하고 있는 모문의 진리치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고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특징으로 설명되지만, 전제는 어떤 변칙을 일으키지 않고 그 문장에서 명시적으로 부인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 예문 (10)을 보자.

- (10) a. Jenny doesn't regret having failed, because in fact she passed.
- b. Jenny failed.

위 예문 (10a)에서 의미적 전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의미적 정의에 따르면 전제는 부정에서도 살아남지만 (10a)의 경우 그렇게 될 경우 모순을 일으킨다. 즉, (10a)는 'regret' 동사에 의해서 (10b)를 전제하기도 하는데, 'because' 절에 의해서 (10b)가 거짓이라는 것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미적 전제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부정(negation)은 전제를 보존하는 종류의 부정과, 전제를 부정하는 종류의 부정 사이에서 중의적이라고 주장해야 하는데, 이것은 부정에 대한 다른 영역이 있다는 Russell식의 주장이 아니라 부정 형태소가 사실상 중의적이라는 것으로서, Levinson(2013)은 자연언어의 부정에 그런 중의성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한다. 결국 의미적 전제는 표현과 연관된 불변의 관계를 요점으로 하고 있으나, 전제는 위 (10a)에서처럼 명시적으로 취소될 수도 있고, 5장에서 언급하게 될 특정 상황적 맥락에서도 취소될 수 있다는 점, 복문에서 전제가 사라지는 문제, 그 외에 모문의 진리치를 따질 수 없는 발화에서 전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의미적 전제로서 모든 전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게 된다.

2.2.2 화용적 전제

위와 같이 의미적 전제에서는 전제 현상을 진리조건에 의해서 설명하려고 하였으며, 모문의 진리치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고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 맥락에서 전제가 취소되고, 복문에서의 전제 투사 문제 등으로 의미적 전제 이론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맥락과 화자, 청자 요인을 고려하려는 화용적 전제 이론이 제시되었다.(김경애, 2012 재인용)

예를 들어, Keenan(1971)은 아래 붙어 문장 (11)에서 대명사 ‘tu’는 ‘청자가 동물 또는 어린아이이거나 사회적으로 화자보다 열등한 사람 혹은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임’을 전제하는 것 같다고 했다

(11) Tu es Napoleon

그런데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여 이것이 참도 거짓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 즉, 청자가 정말 Napoleon이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다. 그러므로 ‘tu’의 사용에 의해 나타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유지되는 관계와 관련된 전제는 진리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Keenan(1971)은 그러한 예를 화용적 전제(pragmatic presuppositions)라고 했으며, 독자적인 화용론적 추론을 형성한다고 했다.

Levinson(2013)은 화용적 전제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초기에는 두 개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용했는데, 그것은 적정성(appropriateness or felicity)과 상호지식 또는 공동기저(mutual knowledge or common ground or joint assumption)이며, 다음 (12)와 같이 설명된다고 하였다.

(12) An utterance A pragmatically presupposes a proposition B iff A is appropriate only if B is mutually known by participants.

즉, 어떤 명제 B가 대화 참여자들 간에 서로 알려져 있고, 발화 A가 적절하다면, 발화 A는 명제 B를 화용론적으로 전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선 적정성의 내용을 보면, 의미론적 개념에서는 전제를, 어떤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보는데, 화용적 개념에서는 어떤 문장이나 발화가 적절하게 쓰이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가정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전제가 거짓인 어떤 문장을 발화하는 것은 의미론적 관점에서는 참도 거짓도 아닌 문장을 단언하는 것인데 반해

화용론적 관점에서는 단지 부적절한 발화(inappropriate utterance)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에게 아래 (13)을 말했다고 하자.

(13) You weren't late again today.

여기서 전제되는 내용은 '이전에 지각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제가 거짓일 때(이전에 지각을 한 적이 없을 때), (13)의 말을 한다면, 의미론적 전제에서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문장을 발화한 것이다. 반면, 화용론적 관점에서는 이는 적절하지 못한 발화를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화용적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는 다음 예문 (14)를 보자.

(14) Please close the door.

위 (14)가 적절한 발화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방에 문이 있고, 둘째, 그 문이 열려 있으며 셋째, 청자가 그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맥락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14)의 발화가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처럼 화용론적 전제는 주어진 맥락 속에서 발화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다음으로 화용적 전제 개념에서 '공동기저'와 관련하여 Stalnaker(2002)의 견해를 보면, 어떤 개인의 전제는 화자가 대화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공동 믿음(common belief)이며, 이러한 공동 믿음은 대화자들이 공유하고 있거나, 그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믿는 무한한 믿음의 집합이다. 또한 대화과정에서 대화자들에 의해 참으로 받아들여지는 명제들은 공동기저에 추가되고, 맥락은 이 명제와 양립할 수 있는 정보만이 남고 모순되는 정보는 삭제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수용이 된 명제는 공동기저로서 서로 간에 당연시 여기게 되고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외에 화용적 전제 개념에서 '상호지식 조건(mutual knowledge condition)'을 보면, Levinson(2013)은 이러한 상호지식 조건은 지나치게 제약을 주는 조건이라고 하였다. 아래 예문 (15a)를 보자.

- (15) a. I'm sorry I'm late, I'm afraid my car broke down.
 b. The speaker has a car.

(Levinson, 2013)

위 예문 (15a)의 경우 전제되는 내용인 (15b)를 청자가 미리 알지 못해도 화자는 (15a)를 말할 수 있고, 청자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다. 즉, 내가 전제하는 것이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 발화의 상황에서 가정할 수 있는 명제라면 그것은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Gazdar(1979a)는 ‘내가 전제하는 것’은 ‘맥락에서 가정되는 명제와 일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였으며, Givon(1982)은 전제는 ‘대화시에 화자가 가지는 가정들, 다시 말하여 청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또는 모르더라도 쉽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되는 가능성이 많은 가정들’로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대조되는 다음 예문 (16a)를 보자.

- (16) a. I'm sorry I'm late, my fire-engine broke down.
 b. The speaker has a fire-engine.

(Levinson, 2013)

위 예문 (16a)는 (16b)가 참이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 그 이유는 내가(화자가) 문장에서 전제를 하고 있지만 청자가 그러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지도 않으며, 평범한 남자가 소방차를 갖고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발화 맥락에서 소방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가정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도 전제는 세상 지식, 맥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화용론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제라는 언어적 추론은 고정적인 표현과 관련이 있고, 부정하에서도 변하지 않는 등의 의미론적 특징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화자와 청자사이의 관계, 세상에 대한 지식, 상황적 맥락에 따라 영향을 받는 화용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Ⅲ. 영어의 전제 유발체

앞 장에서 전제의 이론적 배경과 의미·화용적 전제 개념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본 장에서는 영어에서 전제를 유발하는 표현, 구조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전제 유발체(presupposition-triggers)라고 부를 것이며, 의미적으로 전제를 유발하는 것과 화용적으로 전제를 유발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서 논하고자 한다. Karttunen(n.d.)은 31종의 전제 유발체들을 모아 놓았으며, Levinson(2013)은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현상들을 1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여기서는 이를 발췌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3.1 의미적 전제 유발체

의미적 전제 유발체는 크게 어휘적 전제 유발체와 통사적 전제 유발체로 나누고자 한다. 어휘적 전제 유발체는 해당 어휘의 표현이 전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통사적 전제 유발체는 문장 구조에 의해서 전제가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의미적 전제는 부정에서도 살아남는 특징이 있으므로 부정문을 같이 표기하고자 한다. 여기서 긍정문과 부정문은 ‘/’에 의해 분리되어 있으며, 전제 유발체는 밑줄로 표시, ‘>>’는 ‘전제한다’를 뜻한다.

3.1.1 어휘적 전제 유발체

어휘 자체의 표현이 전제를 일으키는 어휘적 전제 유발체에는 사실성 동사, 함축 동사, 상태변화 동사, 반복어, 판단 동사가 있다.

첫째, 사실성 동사(factive verbs)를 보자.

(17) a. Martha regrets/doesn't regret drinking Jone's home brew.

>> Martha drank Jone's home brew.

b. Frankenstein was/wasn't aware that Dracula was there.

>> Dracula was there.

c. John realized/didn't realize that he was in debt.

>> John was in debt.

d. It was odd/it wasn't odd how proud he was.

>> he was proud

(Kiparsky & Kiparsky, 1971)

위와 같은 사실성 동사들은 그 보문절 또는 목적어가 사실임을 전제하며, 여기에는 이 외에도 'know, be sorry that, be proud that, be glad that, be sad that' 같은 동사들이 있다. 반면 보문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전제하는 아래 예문 (18)을 보자.

(18) She pretends to be rich.

>> She is not rich.

위 예문 (18)에서 'pretend'는 예문 (17)과 반대로 보문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전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성범(2002)은 위와 같이 종속절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전제하는 동사에는 이외에도 'dream, imagine'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둘째, 어휘적 전제 유발 장치의 경우로 함축 동사(implicative verbs)를 보자.

(19) a. Jonn managed/ didn't manage to open the door.

>> John tried to open the door.

b. John forgot /didn't forget to lock the door.

>> John ought to have locked, or intended to lock the door

(Karttunen, 1971)

앞의 사실성 동사가 보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하는 반면, 함축 동사는 동사 자체가 전제를 유발하면서 동사 어휘의 의미 일부까지 전제가 되는 경우이다. (19a)에서는 부정문의 경우 'John did not open the door'라는 단언을 하지만, 긍

정문의 전제 ‘John tried to open the door’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함축 동사에는 이외에도 ‘X happened to V’, ‘X avoided V_ing’가 있는데, ‘X happened to V’는 ‘X didn’t plan or intend to V’를 전제하고, ‘X avoided V_ing’는 ‘X was expected to’ 또는 ‘usually did’ 또는 ‘ought to V’를 전제한다. 함축 동사에서의 전제는 다른 화용론적 추론인 ‘함축(Implicature)’과 혼동될 수 있는데, Grice(1975)에 의하면 함축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는 별도로 화자가 암시하거나 전달하는 의미이므로, 여기서는 ‘함축’이라기 보다는 ‘전제’에 해당한다.

셋째, Sellars(1954)와 Karttunen(1973)은 상태변화동사(change of state verbs)에 대해 논하였다. 다음 예문 (20)을 보자.

- (20) a. Kelly stopped/didn’t stop singing a song.
 >> Kelly had been singing a song.
- b. Anna began/didn’t begin to play the piano.
 >> Anna hadn’t been playing the piano.
- c. Kissinger continued/didn’t continue to rule the world
 >> Kissinger had been ruling the world.

위 예문 (20a)와 (20b)에서는 발화 이전의 상태와 이후 상태에서 변화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변화 동사에는 이외에도 ‘finish, start, cease, leave, enter, come, go, arrive’ 등이 있다. 반면에 (20c)는 상태 지속을 나타내는 동사로서 그 이전에도 그런 상태로 있었음을 전제하는데, 여기에는 이외에도 ‘carry on, keep on, maintain, go on, remain’ 등의 동사가 있다.

넷째, Levinson(1983)은 반복어(iteratives)에서 나타나는 전제를 논하였다. 다음 예문 (21)을 보도록 하자.

- (21) a. The policeman came/didn’t come again.
 >> The policeman came before.
- b. You will never reach the summit anymore
 >> You once reached the summit.

c. Carter returned/didn't return to power.

>> Carter held power before.

위 예문 (21)에서 처럼 반복을 나타내는 'again, anymore, return' 어휘는 그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음을 전제한다. 이러한 반복어에는 이외에도 'once more, repeat, another time, over and over'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Fillmore(1971)가 논한 판단동사(verbs of judging)가 있다. 다음 예문 (22)를 보자.

(22) a. Anna accused/didn't accuse Mary of lying.

>>(Anna thinks) lying is bad.

b. Anna criticized/didn't criticize Mary for stealing money.

>>(Anna thinks) Mary stole money.

Wilson(1975)은 판단 동사의 경우는 다른 전제와 달리 화자에 기인하지 않고, 판단 동사의 주어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22a)에서는 'Anna는 거짓말이 나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전제되며, (22b)에서는 'Anna는 Mary가 돈을 훔쳤다고 생각한다'가 전제된다. 한국어에서는 'accuse'와 'criticize'가 각각 '비난하다'와 '비판하다'로 비슷한 뜻을 가지지만, 영어에서 위 두 개 단어가 전제하는 내용은 다르다. 즉 (22a)는 단지 Anna는 'Mary가 거짓말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Mary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22b)는 '돈을 훔치는 것은 나쁘다'라는 것도 전제하면서 동시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 즉, 'Mary가 돈을 훔쳤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이다. 결국 (22a)와 (22b)는 전제되는 방식이 다르다.

3.1.2 통사적 전제 유발체

문장 구조에 의해서 전제가 발생하는 통사적 전제 유발체를 보도록 한다. 여기에는 한정적 기술 표현과 시제절, 분열문, 강세 구성소를 가진 함축적 분열문, 비

교와 대조 구문, 비제한적 관계절, 반사실적 조건문을 들 수 있다.

첫째, Strawson(1950, 1952)이 논한 한정적 기술 표현(definite descriptions)을 보도록 하자.

(23) a. Harry wants to buy/doesn't want to buy the cat with blue eyes.

>> There exists a cat with blue eyes.

b. I borrowed/didn't borrow Mary's umbrella.

>> Mary has a umbrella.

위 예문 (23a)에서 정관사가 쓰인 한정적 기술 표현인 'the cat with blue eyes' 는 파란 색의 눈을 가진 고양이의 존재를 전제한다. 즉, 한정 명사구가 '존재적 전제(existential presupposition)'를 생성한다. 그런데 만일 위 예문 (23a)에서 정관사 대신에 부정관사를 써서 'a cat with blue eyes'라고 한다면 파란색 눈을 가진 고양이가 있음을 전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관사의 한정성(definiteness) 유무가 문장의 전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정적 기술 표현에서는 이러한 한정 명사구외에 (23b)에서와 같은 소유격 표현도 전제를 유발한다. 즉, 'Mary의 우산을 빌렸다'는 것은 'Mary가 우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둘째, 시제절(temporal clauses)에서 전제가 유발되는 경우를 보자.

(24) a. Before Strawson was even born, Frege noticed/didn't notice presuppositions.

>> Strawson was born

b. While Chomsky was revolutionizing linguistics, the rest of social science was/wasn't asleep.

>> Chomsky was revolutionizing linguistics.

c. Since Churchill died, we've lacked/we haven't lacked a leader

>> Churchill died

(Frege, 1892(1952); Heinamaki, 1972)

위 예문 (24)에서 알 수 있듯이 시제절은 그 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나 사건이 이미 발생하였음을 전제한다. 이러한 시제절에는 이외에도 ‘after, during, whenever, as(예: As John was getting up, he slipped.)’가 쓰인 절이 있다.

셋째, 분열문(cleft sentences) 구조에서 전제가 유발되는데, 다음 예문 (25)를 보자.

(25) a. It was/wasn't Henry that gave Rosie ring.

>> Someone gave Rosie ring.

b. What John lost/didn't lose was his wallet.

>> John lost something.

위 예문 (25a)는 분열구문(cleft construction)이고, (25b)는 유사분열구문(pseudo-cleft construction)이다. 분열구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조구문이라고 일컫는 구문으로서, (25a)에서는 ‘Henry’가 강조되면서 ‘누군가가 Rosie에게 반지를 줬다’는 것이 전제되며, (25b)에서는 ‘his wallet’이 강조되면서 ‘John이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전제된다. Halvorsen(1978)은 분열구문과 유사분열구문에서는 이러한 강조되는 사항, 즉 초점이 되는 요소는 위에서 각각 보여주는 전제 외에도 ‘초점이 되는 요소는 술부가 적용되는 유일한 요소’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전제한다고 하였다.

넷째, Chomsky(1972)와 Wilson & Sperber(1979)가 논한 강세 구성소를 가진 함축적 분열문(implicit clefts with stressed constituents)이 있다. 다음 예문 (26)을 보자.

(26) a. The Turtle Ship was/wasn't invented by LEE, SUN-SIN!

>> Someone invented the Turtle Ship.

b. Younghee did/didn't go to AFTERSCHOOL ACADEMY.

>> Younghee did go somewhere.

위 예문 (26)과 같이 문장의 어느 부분에 강세를 주어 발화하면, 그 강세를 받

는 부분에 관한 전제가 유발된다. 그래서 강조구문은 아니지만 그것과 동일한 전제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즉, (26a)는 ‘It was/wasn’t Lee, Sun-sin that invented the Turtle Ship.’에서와 같은 전제를 유발하고, (26b)는 ‘It was/wasn’t afterschool academy that Mary went to.’에서와 동일한 전제를 유발한다.

다섯째, Lakoff(1971)가 논한 비교와 대조 구문(comparisons and contrasts)에서 전제가 유발되는 경우를 보자.

(27) a. Carol is/isn’t a better linguist than Barbara.

>> Barbara is a linguist.

b. Jimmy is/isn’t as unpredictably gauche as Billy.

>> Billy is unpredictably gauche.

c. Marianne called Adolph a male chauvinist, and then HE insulted HER

>> For Marianne to call Adolph a male chauvinist would be to insult him.

(G. Lakoff, 1971)

위 예문 (27a)에서처럼 비교 구문의 경우에는 주어가 비교되는 대상보다 더 나은 언어학자인건 아니건 간에, 그 비교되는 대상(Barbara)은 주어와 같은 언어학자임을 전제한다. 그리고 (27c)는 대조의 경우를 보여주는데, 후속절에서 ‘Adolph’를 지시하는 ‘he’와 ‘Marianne’를 지시하는 ‘her’에 강조를 둠으로써 ‘Marianne이 Adolph를 남성 우월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를 모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처럼 비교와 대조는 강세 또는 다른 운율적 수단 및 ‘too, back, in return’과 같은 불변화사(particle), 또는 비교 구문에 의해 표시된다.

여섯째, Levinson(1983)이 논한 비제한적 관계절(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s)을 보자.

(28) a. Carrots, which are rich in vitamin A, can/can not improve your eyesight.

>> Carrots are rich in vitamin A

b. Carrots which are rich in vitamin A can improve your eyesight.

위 예문 (28a)는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하여 시력에 좋다’라는 뜻이 되어 모든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계속적 유형의 관계절은 부가적인 정보를 삽입하는 것이며, 또한 주동사(main verb)의 부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삽입되는 내용이 전제를 일으킨다. 반면에 (28b)와 같은 제한적 유형의 관계절은 (28a)와 동일한 전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28b)는 정확히 해석하자면, ‘당근 중에서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은 시력에 좋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모든 당근이 비타민 A가 풍부하다고 볼 수 없어 관계절과 주어가 동격으로 되지 않으므로 (28a)에서와 같은 전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이성범(2002)은 아래 예문 (29)를 제시하면서 동격절은 전제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29) a. Ron, the rookie of the year 2001, will start tonight

>> Ron was the rookie of the year 2001

b. They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she lost her husband a week ago.

>> She lost her husband a week ago.

마지막으로, 반사실적 조건문(counterfactual conditionals)에서 전제가 유발되는 경우를 보자.

(30) a. If Hannibal had only had twelve more elephants, the Romance languages would/would not this day exist.

>> Hannibal didn't have twelve more elephants.

b. If the notice had only said 'mine-field' in English as well as Welsh, we would/would never have lost poor Llewellyn.

>> The notice didn't say 'mine-field' in English.

(Levinson, 2013)

위 예문 (30a)와 (30b)에서 보듯이 반사실적 조건문은 우리가 흔히 가정법 과거완료라고 부르는 형태의 문장으로서, 과거에 일어난 사실과 반대 내용이 전제되므로, 이러한 반 사실적 조건문은 통사적으로 전제를 유발한다.

3.2 화용적 전제 유발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미적 전제는 어떤 문장 S의 진위가 성립되기 위한 필요 조건을 말하며, 보통 부정문 검사를 통해서 의미적 전제를 판별한다. 그런데, 진리조건적 개념으로 볼 수 없는 문장들이 있다. 예를 들어 명령문이나 의문문은 참이나 거짓을 따질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문장에서는 전제를 그 문장이나 발화가 적절하게 쓰이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가정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를 화용적 전제로 분류하고자 한다.

3.2.1 의문문

Katz(1972)와 Lyons(1977)는 의문문에서 전제가 유발된다고 하였다. 다음 예문(31)을 보자.

(31) a. Is there a professor of linguistics at MIT?

>> Either there is a professor of linguistics at MIT or there isn't.

b. Is Newcastle in England or is it in Australia?

>> Newcastle is in England or Newcastle is in Australia.

c. Who is the professor of linguistics at MIT?

>> Someone is the professor of linguistics at MIT.

(Katz, 1972; Lyons, 1977)

위 예문 (31a)의 yes, no 의문문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대답을 이접시킨 무의미한 전제를 가지며, 이들은 부정문에서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의문문의 전제이다. 그런데 (31b)의 선택의문문은 그들의 이접을 전제하지만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긍정 또는 부정을 단순히 묻는 (31a)와 달리, 선택 대안을 두 가지 제시하여 대안 중에 어느 하나를 긍정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31c)처럼 Wh-의문문은 Wh-단어를 적절한 변항으로 바꿈으로써(who는

someone, where는 somewhere, how는 somehow) 얻어지는 전제를 갖는다.

3.2.2 명령문

명령문도 그 문장의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없지만, 명령문이 적절한 발화가 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가정이 있다. 다음 예문 (32)를 보자.

- (32) a. Have some cake.
- b. There is some cake you can eat
- c. Please open the window.
- d. The window is close.

위 예문 (32a)와 같은 발화가 적절하게 되려면, 청자가 먹을 케이크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예문 (32c)와 같은 발화가 적절하게 되려면, 창문이 열려있고, 그 외에도 청자가 화자의 말을 이행할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예문 (33)을 보자.

- (33) a. Tell manager I go to the city hall on business.
- b. Manager is likely to come soon.
- c. The addressee will pass the message on.
- d. The addressee knows who the manager is.

위 명령문 (33a)와 같은 말을 하는 기저에는 (33b-d)같은 조건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즉, (33b-d)같은 부분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33a)와 같은 말을 하는 의미가 없고, 따라서 (33b-d)는 화자가 말을 할 때 주어진 것으로 보는 부분으로서 맥락과 관련되기 때문에 화용적 전제(pragmatic presupposition)라고 할 수 있다.

IV. 한국어와 영어의 전제 유발체 비교

본 장에서는 한국어의 전제 유발체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며, 여기서도 영어와 같이 크게 의미론적으로 전제를 유발하는 것과 화용론적으로 전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누고자 한다. 그리고 각각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경우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4.1 의미적 전제 유발체

한국어에서 의미론적 전제를 유발하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자 한다. 첫째 어휘가 전제를 일으키는 어휘적 전제 유발체와 조사 및 어미가 전제를 일으키는 형태적 전제 유발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 구조가 전제를 일으키는 통사적 전제 유발체로 나눌 것이다.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미적 전제는 부정에서도 살아남는 특징이 있으므로 여기서 제시하는 예문에서 부정문을 같이 표기하며, ‘/’에 의해 긍정문과 부정문을 분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전제 유발체는 밑줄로 표시한다.

4.1.1 어휘적 전제 유발체

어휘적 전제 유발체는 단어 자체가 전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여기에는 사실성 동사, 상태 변화 동사, 반복어가 있다. 먼저 사실성 동사를 보도록 하자.

첫째, 사실성 동사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보문(내포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후회하다, 깨닫다, 이상하다, 알다, 가없다’ 등을 들 수 있겠다. 다음 예문 (34-36)을 보자.

(34) a. 기철이는 민혁이가 시험에 합격한 것을 안다./알지 못한다.

b. 민혁이가 시험에 합격했다.

(35) a. 영희는 이과를 선택한 것을 후회했다./ 후회하지 않았다.

b. 영화는 이과를 선택했다.

(36) a. 엄마는 아들이 군대에서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웠다./안타깝지 않았다.

b. 아들이 군대에서 고생한다.

위 예문 (34)부터 (36)까지 각 a는 각 b를 전제한다. 이는 각 a에 있는 동사들이 보문의 사실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어와 달리 한국어 ‘알다’의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 보문 내용이 전제되지 못한다. 다음 예문 (37)을 보자.

(37) a. 기철이는 민혁이가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안다.

b. 민혁이가 시험에 합격했다.

위 예문 (37a)는 위에서 언급한 사실성 동사 ‘알다’가 사용되었지만, (37b)를 전제하지 못한다. 명사화 보문자(complementizer) ‘것’ 과 조사 ‘으로’가 쓰임으로써 전제성에 대해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어 ‘알다’ 동사의 경우는 모두다 보문의 내용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며 보문자와 조사의 결합에 따라 전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동사 자체가 보문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전제하는 경우가 있다.

(38) a. 슬기는 우는 척 했다.

b. 슬기는 울지 않았다.

위 (38a)에서는 보문의 동사 때문에 내포문의 허위성이 전제된다. 즉, 내포문의 거짓을 전제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창운(1987)은 ‘-양 하다’, ‘-척 하다’, ‘-체 하다’는 동사나 형용사의 매김꼴과 결합하여 내포문의 거짓을 전제하기 때문에 ‘반사실성 서술어’를 이룬다고 하였고, 내포문의 사실성이 참으로도, 거짓으로도 전제되지 않는 서술어(주장하다. 믿다, 추측하다)는 ‘비사실성 서술어’라고 하였다.

둘째, 어휘적 전제 유형으로서 상태 변화 동사의 경우를 보자.

(39) a. 기현이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시작하지 않았다.

- b. 기현이는 밥을 먹고 있지 않았다.
- (40) a. 수연이는 달리기를 멈추었다./멈추지 않았다.
- b. 수연이는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 (41) a. 예진이는 기타를 배우는 것을 그만두었다./그만두지 않았다.
- b. 예진이는 기타를 배우고 있었다.

위 예문 (39-41)에서 보듯이 ‘시작하다, 멈추다, 그만두다’ 등의 상적인 동사 (aspectual verbs)는 이전의 상태와 그 이후 상태에서 변화가 있음을 전제한다. 반면에 아래 예문 (42-43)과 같이 상태 지속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다.

- (42) a. 청소부는 비가 오는 데도 유리창 청소를 계속했다./계속하지 않았다.
- b. 청소부가 유리창 청소를 하고 있었다.
- (43) a. 그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정계에 복귀했다./복귀하지 않았다.
- b. 그는 이전에 정계에 있었다.

위 예문 (42-43)에서 보듯이 ‘계속하다, 복귀하다’ 등의 상태 지속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그 이전에도 그런 상태로 있었음을 전제한다. 상태 변화 동사에서 보여주는 한국어의 전제 특징은 영어와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셋째, 반복어(반복 표현)가 전제를 유발하는 경우를 보자.

- (44) a. 제비가 집에 또 날아왔다./날아오지 않았다.
- b. 제비가 날아 온 적이 있다.
- (45) a. 기철이는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걸지 않았다.
- b. 기철이는 엄마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다.
- (46) a. 철수는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다./복귀하지 않았다.
- b. 철수는 전에 부대에 있었다.
- (47) a. 민혁이는 국회의원 선거에 재출마하였다./재출마하지 않았다.
- b. 민혁이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적이 있다.

위 예문 (44a-47a)들은 ‘반복’의 의미를 가진 부사나 동사, 접두과생동사로 인해 각 a는 각 b를 전제한다. 그런데 고창운(1987)은 반복 부사어 ‘또’는 중의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44a)를 보면, ‘제비가 또 날아오지 않았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째는 ‘또’가 ‘날아오지 않았다’ 전체를 꾸며서 ‘제비가 이번에도 날아오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 ‘제비가 전에도 날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두 번째 다른 해석은 ‘또’가 ‘날아 오지’를 꾸민 다음에 ‘또 날아오지’가 ‘않았다’와 연결되는 해석(제비가 이전에는 날아왔었는데, 다시 날아오지는 않았다)으로 이때는 (44b) ‘제비가 날아온 적이 있다’를 전제하게 된다.

그런데 다음 영어 예문 (48)을 보자.

(48) A swallow didn't fly to my house again.

위 예문 (48)에서는 한국어의 ‘또’에 해당하는 ‘again’에 의해서 ‘제비가 전에 날아온 적이 있다’는 것만 전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어에서는 ‘또’라는 반복어가 부정문에서 중의성을 갖는데, 영어에서 ‘again’은 항상 이전 행위(사건)가 있었음을 전제한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한국어에서 반복어 ‘다시’는 위 예문 (45a)에서 보듯이 ‘again’과 마찬가지로 부정문에서도 항상 이전 행위(사건)를 전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1.2 형태적 전제 유발체

형태적 전제 유발체는 문법적 요소에 의한 전제로서, 한국어에서는 영어와 달리 조사와 어미에 의해서 전제가 유발된다. 우선 조사의 경우를 보자.

4.1.2.1 조사

한국어에서 조사는 일반적으로 격 표지 기능을 하는 격조사와 그 외에 특수한 의미 기능을 다양하게 수행하는 특수조사로 나눌 수 있는데(김현석, 2006), 이러한 조사에서 관형격 조사(-의)와, 특수조사(-은/는, -도/만, -보다/처럼, -으로서)가

전제를 유발한다. 문금현(2004)은 이 조사 외에도 주격 조사(-가), 목적격 조사(-을), 처격 조사(-에)와 인용격 조사(-고)도 전제를 유발한다고 하였는데, 주격, 목적격, 처격 조사는 단지 해당 격조사의 체언을 의문사로 대체한 문장의 의미를 전제하고, 인용격 조사는 앞의 인용문의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그러면, 우선 관형격 조사를 보도록 한다.

첫째, 관형격 조사는 소유나 존재를 전제한다. 다음 예문 (49-50)을 보자.

- (49) a. 영화는 민정이의 서점에 책을 사러 갔다./사러 가지 않았다.
b. 민정이는 서점을 가지고 있다.
- (50) a. 수민이는 오늘 그녀의 모교에 다녀왔다./다녀오지 않았다.
b. 수민이는 모교가 있다.

위 예문 (49a)에서 쓰인 관형격 조사 ‘-의’는 소유를 전제하고, (50a)에 쓰인 관형격 조사 ‘-의’는 존재를 전제한다. 이는 영어에서 소유격 표현과 유사하게 전제를 유발한다.

둘째, 특수조사에서 ‘-은/는’을 보도록 한다. 다음 예문 (51)을 보자.

- (51) a. 영희는 갔다./가지 않았다.
b. 영희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고창운(1987)은 ‘다름’의 뜻을 가진 도움 토씨(특수 조사) ‘는’이 쓰이면 ‘주어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 다름(대조)’을 전제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51a)는 (51b)를 전제한다. 이처럼 ‘조사’라는 문법적 기능을 사용하여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영어에는 없는 한국어의 특징이다.

셋째, 특수조사 ‘-도/만’을 보자.

- (52) a. 가연이도 이번 미술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상을 받지 않았다.
b. 가연이와 같은 상태의 사람이 있다.
- (53) a. 내 친구 중에서 숙희만 이번 시험에 합격했다./합격하지 않았다.

b. 다른 사람과 상태가 다른 것은 숙희 혼자다.

특수조사 ‘-도’는 ‘이것과 저것이 한 가지’라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위 예문 (52a)는 (52b)를 전제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어에서는 부사 ‘also’를 사용하여 유사한 전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also’는 주어를 한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문장을 연결하는 의미로서의 기능(예: I didn’t like it that much. Also, it was much too expensive) 등이 있어서 한국어의 특수조사 ‘-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전제를 유발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특수조사 ‘만’은 ‘다른 것(사람)과 달리 하나(혼자)’라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위 예문 (53a)는 (53b)를 전제한다. 영어에서는 부사 ‘only’를 사용하여 유사한 전제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only’는 이외에도 ‘겨우, 단지’(예: It only took a few seconds), ‘-에 지나지 않아’(It was only a suggestion) 등의 의미가 있어서 이 또한 한국어 특수조사 ‘만’의 경우와 동일하게 전제를 유발한다고는 볼 수 없다.

넷째, 특수조사 ‘-보다/처럼’을 보도록 하자.

(54) a. 경숙이는 수연이보다 훌륭한 피아니스트다./피아니스트가 아니다.

b. 수연이는 피아니스트다.

(55) a. 예림이는 누리처럼 달리기를 잘 한다./잘 하지 못한다.

b. 누리는 달리기를 잘 한다.

위 예문 (54a), (55a)에서는 비교 의미를 나타내는 ‘보다(만큼)’, ‘처럼(같이)’이 쓰여서 각 a는 각 b를 전제한다. 그런데 (55a)에서 부정문을 택한다면 ‘예림이는 누리처럼 달리기를 잘 하지 못한다’가 되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첫 번째 해석은 ‘누리처럼’이 ‘달리기를 잘 하지 못한다’ 전체를 꾸며서 예림이나 누리 모두 달리기를 못한다는 해석이 있고, 두번째는 ‘누리처럼’이 ‘달리기를 잘 하지’를 꾸민 다음 ‘누리처럼 달리기를 잘 하지’ 전체가 ‘못한다’에 연결되는 해석으로서, 둘 다 잘 하는데, 예림이가 누리만큼은 못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후자의 해석만이 (55b)를 전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와 다르다. 다음 예문 (56)을 보자.

- (56) a. Yerim can't run as fast as Nuri.
- b. Nuri runs fast.
- c. Yerim can't run so fast, and neither can Nuri.

(55a)에서의 부정문을 영어로 바꿔 보면 (56a)가 되는데, 부정문에서도 단지 (56b)가 전제될 뿐, (56c)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영어 문장 (56a)에서는 한국어에서처럼 둘 다 달리기를 못한다는 의미는 발생하지 않으며, Nuri가 빨리 달린다는 것을 전제하고 둘을 비교하는 것이 된다. 만일 둘 다 달리기를 못한다는 의미가 생길려면 (56c)처럼 달리 표현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유는, 한국어와 영어는 통사적 구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어에서는 '누리처럼'이 부사와 동사(잘 하지 못한다) 앞에 오면서 첫째, '누리처럼'이 바로 뒤에 오는 '잘 하지'를 꾸미는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누리처럼'이 '잘 하지 못한다' 전체를 꾸미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리가 잘하는 것이 전제가 될 수도 있고,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비교 대상인 'Nuri'가 문장 맨 뒤에 오면서 동사 'can't run'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Nuri'가 잘 달리는 것이 항상 전제되고, 'Nuri'가 못하는 의미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처럼 비교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전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영어에서는 통사적인 비교 구문으로 전제가 유발되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조사로써 그 기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특수조사 '-(으)로서'를 보도록 하자.

- (57) a. 그녀는 교사로서 훌륭하다./훌륭하지 않다.
 - b. 그녀는 교사이다.
 - c. 그는 그녀를 인생의 반려자로(서) 생각한다./생각하지 않는다.
 - d. 그녀는 인생의 반려자이다.
- (58) a. He is/isn't great as teacher.

- b. He is a teacher.
- c. He thinks/doesn't think of her as a life parter.
- d. She is a life parter.

위 예문 (57a)는 자격을 나타내면서 (57b)와 같은 전제를 유발한다. 그래서 그가 교사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가 훌륭하다는 단언을 하는 것이 된다. 즉, (57a)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교사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57c)에서는 (57d)가 전제되지 않는다. 이것은 함께 쓰인 비 사실성 동사(생각한다) 때문에 사실성이 확실히 전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어의 특수조사 ‘-(으)로서’와 대응되는 표현으로 영어에서는 전치사 ‘as’를 사용하여 유사한 전제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그래서 (58a)는 (58b)를 전제한다. 하지만 영어에서도 비사실성 동사(think)를 쓸 경우 전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58c)는 (58d)를 전제하지 못한다. 영어에서 ‘think’와 같은 비사실성 동사는 5장 전제 투사에서 ‘plug’의 개념으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4.1.2.2 어미

한국어에서 형태적 전제 유발체로서는 조사 외에 ‘어미’라는 문법적 성분이 있는데, 어미 중에서 ‘-ㄴ’ 관형사형 어미와 ‘-음’ 명사형 어미가 전제를 유발한다. 문금현(2004)은 어미에서 위 두 가지 어미 외에도 종속접속 어미(- 때문에, -이니까, -이므로 등)도 전제를 유발한다고 하였는데, 종속접속 어미는 그 절에 있는 내용 그대로가 전제되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ㄴ’ 관형사형 어미를 보도록 하자.

- (59) a. 그는 회사 입사 시험에 떨어진 사실을 숨겼다./ 숨기지 않았다.
- b. 그는 회사 입사 시험에 떨어졌다.
- (60) a. 태호는 오늘 늦게 일어난 것을 후회한다./후회하지 않는다.
- b. 태호는 오늘 늦게 일어났다.
- (61) a. 영수는 올해 유럽 여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있지 않다.

b. 영수는 올해 유럽 여행을 하였다.

위 예문 (59a), (60a)는 각각의 b를 전제한다. ‘- ㄴ’ 관형사형 어미에 의해서 생긴 관형절 구조가 전제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형사형 어미 중에서 ‘-르’의 경우는 전제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61a)는 (61b)를 전제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음 예문 (62)를 보자.

- (62) a. 영수는 꼬리가 노란색인 다람쥐를 보았다/보지 않았다
b. 꼬리가 노란색인 다람쥐가 있다.
c. 아현이는 털이 노란 강아지를 사고 싶어 한다.
d. 털이 노란 강아지가 있다.

위 예문 (62a)는 ‘- ㄴ’ 관형사형 어미에 의해서 (62b)를 전제한다. 그런데 이성범(2002)은 위 예문 (62c) 같은 경우는 (62d)를 반드시 전제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아현이가 사고 싶어하는 그런 강아지가 있다는 것을 화자가 전제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화자는 그런 강아지의 존재를 전혀 전제하지 않고 다만 그런 강아지가 있다면 아현이가 사고 싶어 한다는 말만 단언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62c)는 (62a)와 마찬가지로 ‘- ㄴ’ 관형사형 어미가 쓰였지만 전제가 반드시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뒤따르는 동사가 사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비 사실성 동사’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어에서는 한국어의 관형어 구조와 유사한 표현이 한정 명사구라고 할 것인데, 3장의 예문 (23a)에서 보듯이 영어의 한정 명사구에서는, 한국어와 달리 한정적 기술 표현에 정관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전제 발생이 결정된다. 그래서 위 한국어 예문 (62c)를 영어로 바꾼 아래 예문(63a)와 (63b)에서, (63a)는 (63c)를 전제하지만 (63b)는 (63c)를 전제하지 않는다.

- (63) a. Aa-yuen wants to buy the puppy with yellow fur.
b. Aa-yuen wants to buy **a** puppy with yellow fur.
c. There is a puppy with yellow fur.

즉, 영어에서도 한정적 기술 표현을 비사실성 동사와 함께 썼지만, 영어에서는 그 동사에 상관없이 단지 정관사에 따라 전제 발생이 결정되는 것이다.

둘째, 어미 중에서 ‘-음’ 명사형 어미가 전제를 유발한다. 다음 예문 (64-65)를 보자.

(64) a. 그녀가 합격했음을 표정으로 알 수 있었다./없었다.

b. 그녀가 합격했다.

(65) a. 부장님은 철수가 보고한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지적하지 않았다.

b. 철수가 보고한 내용이 잘못되었다.

위 예문(64a)와 (65a)는 각각의 b를 전제한다. 명사형 어미 ‘-음’이 과거의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미’라는 문법적 기능을 사용하여 과거의 사실을 전제하는 것은 영어에는 없는 한국어의 특징이다.

4.1.3 통사적 전제 유발체

통사적 전제는 구문에 따른 전제로서, 조사 및 어미에 의한 전제와 마찬가지로 문법적 요소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인데, 한국어에서 통사적 전제 유발체로는 분열문과 시간 부사절이 있다.

첫째, 분열문을 보도록 하자. 분열문은 앞의 영어의 전제 표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조구문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어에서는 ‘~ㄴ 것은 ~이다’로 나타난다. 아래 예문 (66)을 보자.

(66) a. 철수가 잃어버린 것은 지갑이다./지갑이 아니다.

b. 철수가 뭔가를 잃어버렸다.

위 예문 (66a)는 분열문으로서 (66b)를 전제한다. 이는 영어에서 분열문 구조가 보여주는 전제 현상과 동일하다.

둘째, 시간 부사절을 보자.

(67) a. 영화는 운동을 끝낸 뒤에 집으로 갔다./가지 않았다.

b. 영화는 운동을 끝냈다.

(68) a. 철수는 밥을 먹기 전에 운동을 했다./하지 않았다.

b. 철수는 밥을 먹었다.

(69) a. 엄마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민혁이는 공부를 하고 있었다./하고 있지 않았다.

b. 엄마가 집에 돌아왔다.

위 예문 (67a), (68a), (69a)는 시간절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시간절에 들어 있는 내용을 전제하므로 각각의 b를 전제하게 된다. 그런데 고창운(1987)은 시간절 부사어가 전제를 유도할 때에는 주절의 시제가 관여한다고 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70) a. 영화는 운동을 끝낸 뒤에 집으로 갈 것이다.

b. 철수는 밥을 먹기 전에 운동을 할 것이다.

위 예문 (70a), (70b)는 모두 시간절 부사어가 사용되었지만, 주절이 미래시제로 각각 (67b)와 (68b)를 전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고창운(1987)은 시간절 부사어는 (67a)-(69a)와 같이 그 주절의 시제가 완료일 때에만 전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주절의 시제가 과거나 과거진행 시제일때만 전제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3장에서 영어의 경우 시제절에서 전제를 유발한다고 하였는데, 주절의 시제가 미래 시제인 아래 예문을 보자.

(71) a. Younghee shall go home after she finishes workout.

b. Younghee finished workout.

위 예문 (71a)는 한국어 문장 (70a)를 영어로 바꾼 것인데, (71b)를 전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어에서도 주절이 미래 시제일때는, 그에 따른 시제절에서도 전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국 주절이 과거시점에서의 사건을 서술할 때만 그에 따른 시제절에서 전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화용적 전제 유발체

화용적인 전제는 문장이나 발화가 적절하게 사용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한국어에서 화용적 전제를 유발하는 장치로 높임법 표현과, 의문문, 명령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4.2.1 높임법 표현

한국어에서는 높임법이 발달하여, 대화 참여자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 선후배 관계, 친척 사이의 항렬 등에 따라 적절한 높임말, 낮춤말, 예사말을 써야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고, 불쾌함과 오해를 방지하며 성공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아래 예문 (72-75)를 보자.

- (72) a. 준혁이는 우리 학교 교감이야.
b. 청자와 준혁이의 사회적 지위가 화자보다 낮거나 같다.
- (73) a. 김준혁씨는 저희 학교 교감선생님입니다.
b. 청자와 준혁이의 사회적 지위가 화자보다 높다.
- (74) a. 밥 먹어라/어서 와라!
b. 화자가 청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같다.
- (75) a. 진지 잡수세요/어서 오세요.
b. 화자가 청자보다 나이가 어리다.

위 예문 (72a)와 (73a)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높임법 표현을 달리 씌으로써 각각 (72b)와 (73b)같은 전제가 유발된다. 즉 (72b)와 같은 상황이 전제된 상태에서 (72a)를 발화했을 때 그 발화는 자연스러운 발화가 되며, 마찬가지로 (73b)가 전제된 상태에서 (73a)을 발화할 때 그 발화는 올바른 발화가 되는 것이다. 결국 위 (72b)와 (73b)는 각각의 a가 적정한 발화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것이며, 그 발화 자체에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없고,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전제이므로 화용적 전제에 속한다.

또한, 위 예문 (74a)와 (75a)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나이에 따라 높임법 표현을 달리 사용함으로써 각각 (74b)와 (75b)의 전제가 유발된다. 한국어에서는 대화할 때, 어휘 사용에 있어서 나이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를 배제하고 말을 하게 되면 완전히 부적절한 발화가 되어 버린다. 그래서 위 (74a)와 (75a)도 각각 (74b)와 (75b)를 화용적으로 전제한다.

이와같이 한국어에서는 영어에는 없는 높임법이 매우 발달하여, 이에 따라 대화할 때 화자와 청자 사이에 나이의 많고 적음,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 등의 전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2.2 의문문

높임법 표현 외에 의문문, 명령문에서도 화용적 전제가 발생한다. 우선 의문문에서 발생하는 전제를 보면, 의문문은 그 자체로 진리값을 따질 수 없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전제는 그 문장 또는 발화가 올바르게 쓰이기 위한 적정 조건이 된다. 다음 예문 (76-78)을 보도록 하자.

- (76) a. 할머니가 집에 계시니?
b. 할머니가 집에 계시거나, 또는 안계시다
- (77) a. 경주시는 경상북도에 있니, 경상남도에 있니?
b. 경주시는 경상북도에 있거나 경상남도에 있다.
- (78) a. 누가 너한테 전화를 했니?
b. 누군가가 너한테 전화를 했다.

위 예문 (76a), (77a), (78a)는 각각의 (76b), (77b), (78b)를 전제한다. 즉, 의문문에 대응하는 단언이 가지는 전제를 공유하거나, 단언이 참이나 거짓 둘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전제된다. 고창운(1987)은 (77a)같은 선택의문문은 적절한 말이 되려면 화자가 (77b)를 믿음과 동시에 청자도 (77b)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78a) 의문사 의문문인 경우는 아래의 두 가지 억양 패턴이 있을 수 있다.

i) 누가 너한테 전화를 했니?

ii) 누가 너한테 전화를 했니?

즉, 첫 번째 억양 패턴은 누가에 강세가 걸리면서 상승조로 시작하였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하강조가 되는 억양 패턴이 있고, 두 번째의 경우는 처음에는 하강조로 시작하였다가 끝부분에 강세가 걸리면서 상승조를 보이는 억양 패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패턴만이 누군가가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 전제가 되고, 두 번째의 경우는 누군가 전화를 한 사실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되므로 (78b)를 전제할 수 없다.

반면 영어에서는 (78a)와 같은 의문사 의문문인 경우 아래와 같이 한 가지 억양 패턴으로 나타난다.

i) Who called you?

이것을 볼 때 영어에서는 한국어와 억양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항상 ‘누군가가 전화를 했다’ 는 내용이 전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2.3 명령문

앞의 영어의 화용적 전제 유발체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어에서도 명령문의 경우 그 문장의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없지만, 명령문이 적정한 발화가 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가정이 있다. 다음 예문 (79-80)을 보자.

(79) a. 여기 와서 과일 먹어라

b. 여기에 과일이 있다.

(80) a. 이 안내문 담임 선생님께 갖다 드려라.

b. 청자는 담임 선생님이 누구인지 안다.

c. 청자는 담임선생님을 만날 것이다.

위 예문 (79a)가 적절한 발화가 되기 위해서는 (79b)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80a)와 같은 발화를 하는 기저에는 (80b)와 (80c)같은 조건이 주어져야 적절한 발화가 되고, 말을 하는 의미가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79b)와 (80b), (80c)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화자가 말을 할 때 주어진 것으로 보는 부분으로서 맥락과 관련되는 화용적 전제에 해당한다.

V. 영어와 한국어의 전제 취소와 투사 문제 비교

의미론적 전제에서는 ‘부정(negation)하에서의 불변성’을 주요 특징으로 삼고 있는데, 사실 전제에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다. Levinson(2013)은 전제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특징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i) They are defeasible in (a) certain discourse contexts, (b) certain intra-sentential contexts.

(ii) They are apparently tied to particular aspects of surface structure.

즉, 전제는 특정한 담화맥락이나 문장 간 맥락에서 취소될 수 있고, 표층구조의 특정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속성 ‘취소가능성’은 전제에 대한 어떤 의미 이론에서도 해결될 수 없음을 증명하며, 전제적 행위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속성은 전제를 대화 함축이나 다른 중요한 화용론적 추론과 구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전제의 독특한 특징인 취소 문제와, 복문에서 보여주는 전제의 행태 즉, 전제 투사 문제에 대해서, 영어와 한국어에서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5.1 전제 취소

전제는 특정 맥락에서 사라지기 쉽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대 가정(contrary assumption)이 만들어지는 환경에서 전제는 사라지기 쉽다. 이는 전제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말해지는 부분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가 모두 의의가 없을 때 의례이 인정하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전제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 생기면 암묵적으로 인정되었던 전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서 전제가 취소되는 예를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사실성 동사 ‘know’에서 전제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예문 (81)을 보자.

- (81) a. Paul doesn't know that Mary passed the test.
 b. You don't know that Mary passed the test.
 c. I don't know that Mary passed the test.
 d. Mary passed the test.

위 예문 (81a)와 (81b)는 (81d)를 전제하지만, (81c)는 (81d)를 전제하지 않는다. 즉, 같은 사실성 동사 'know'의 부정문을 사용했는데, 3인칭과 2인칭 주어에서 보문은 사실인 것으로 전제 되지만, 주어가 1인칭이면서, 동사가 부정되면 보문은 전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81c)는 화자 자신이 전제로 할 수도 있는 가정을 명백하게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제의 존재 가능성을 취소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인지해야할 점은 (81a)와 (81b)에서 전제되는 내용은 주어인 'Paul'이나 'You'가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을 발화하는 화자가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의 경우를 보자.

- (82) a. Paul은 Mary가 시험에 합격한 것을 모른다.
 b. 너는 Mary가 시험에 합격한 것을 모른다.
 c. 나는 Mary가 시험에 합격한 것을 모른다.
 d. Mary가 시험에 합격했다.
 e. Paul은 Mary가 시험에 합격했는지 모른다.
 f. 나는 Mary가 시험에 합격했는지 모른다.

위 예문 (82a)와 (82b)에서는 사실성 동사 '알다'의 부정을 사용하면서 각각 주어가 3인칭과 2인칭이므로 영어와 마찬가지로 보문의 내용 (82d)가 전제된다. 그런데 (82c)의 경우를 보면 1인칭 주어를 쓰고 있지만 영어와 달리 보문의 내용이 전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발화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Mary가 합격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대화를 진행해나갈 때 청자인 내가 '그래? 난 그 사실 (Mary가 합격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의미로 발화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1인칭 주어에 ‘알다’의 부정문을 사용했지만 ‘Mary가 합격한 것’이 전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보문의 동사가 ‘-ㄴ’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면서 과거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문의 내용 (82d)가 전제되는 것이다.

반면, 예문 (82e)의 경우 영어와 달리 보문의 내용이 전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예문 (82f)의 경우도 보문 내용이 전제되지 않는다. (82e)의 발화는 내가 Mary의 합격 여부를 몰라서 친구한테 그것을 물어보는데, 친구가 모른다고 대답하면서 Paul에게 물어보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친구에게 ‘Paul한테도 물어봤었는데, Paul도 모르고 있었다’는 의미로 친구에게 발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Mary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전제될 수 없다. 그리고 (82f)는 화자인 내가 ‘Mary가 시험에 합격했는지 자체를 모른다’고 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82d)가 전제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어에서는 ‘알다’의 부정어 ‘모르다’의 경우, 사실성 동사인 데 영어에서처럼 인칭에 따라 전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문 동사에 ‘-ㄴ’ 관형사형 어미가 쓰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81a-c) 같은 영어 문장을 접했을 때 단지 주어에 따라 전제 성립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영어에서 맥락적 가정에 따라 전제가 취소되는 경우를 보자.

(83) At least Susan won't have to regret that she went up to university.

위 예문 (83)처럼 ‘regret’는 사실성 동사이지만, 맥락에 따라 전제가 나타나지 않는 문장으로 발화될 수 있다. 즉, 만일 대화 참여자 모두가 Susan이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위 (83)은 ‘regret’라는 동사가 그것의 보문을 전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세한 가정(prevaling assumptions)에 의해 전제는 취소된다. 왜냐하면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으니 대학에 간 것을 후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더 확실한 상황이나 사실이 잠재적인 전제보다 강할 때 전제는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어의 경우를 보자.

(84) *Susan은 적어도 대학에 진학한 것을 후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문 (83)에서와 동일한 상황을 가정할 때, 즉, 대화자들이 Susan이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에, 한국어에서는 위 예문 (84)처럼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학한 것’이라는 말 자체에 ‘-ㄴ’ 관형사형 어미가 쓰여서 어간의 내용을 전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즉, 이 발화는 대학에 진학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서 하는 말이 되어서 대화자가 알고 있는 맥락과 모순이 발생한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며, 대학에 들어갔을 경우에만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진학한 것을 전제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영어에서는 부정문의 경우 맥락과 반대되는 전제 표현을 갖는 문장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맥락과 모순을 일으키면서 결국 그 전제가 취소되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맥락과 반대되는 전제 표현을 쓰면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부적절한 발화가 되어 버린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영어에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5장 전제 투사 문제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셋째,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배경 믿음(background beliefs)에서 전제가 취소되는 경우와 담화성 맥락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세상에 대한 지식에서 취소되는 경우를 보자.

- (85) a. Mary cried before she finished the project.
- b. Mary finished the project.
- c. Mary died before she finished the project.

일반적으로 ‘before’ 절에 의해 표현된 명제는 전제되는데, (85a)는 (85b)를 전제하지만, (85c)는 (85b)를 전제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절 동사의 의미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사람은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세상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Mary가 그 프로젝트를 끝내지 못했음을 전제준다. 이것은 한국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세상에 대한 지식’은 언어의 전제성립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외에 담화성 맥락에서 전제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 예문을 보자.

- (86) a. It isn't Mike who will betray you.
b. Someone will betray you.
c. You say that someone in this room will betray you, Well maybe so. But it won't be Mike who betray you, it won't be Kyle, it won't be Peter, and it certainly won't be Jenny. Therefore no one in this room is actually going to betray you.

(Keenan, 1971; Wilson, 1975)

분열문 구조에서 (86a)는 (86b)를 전제한다. 그러나 (86c)에서는 분열문 구조가 있지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전제가 결국은 취소된다. 예문 (86c)에서 각 분열문은 청자를 배신할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그러나 (86c) 전체의 발화 목적은 청자에게 그를 배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설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전제는 사라지게 된다. 담화성 맥락에서 전제가 취소 되는 것도 상황에 따른 전제 취소 현상이기 때문에 영어나 한국어 모두 동일하다.

이상에서 전제가 취소되는 형태는 영어와 한국어에서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세상에 대한 배경 가정(background assumptions)이나 배경 믿음들의 집합(set of background beliefs)또는 담화성 맥락에서 전제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 등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전제 취소와 관련하여 Gazdar(1979a, 1979b)는 맥락(context)이라는 것이 대화자 간에 서로 알고 있는 상호지식이나 논쟁의 여지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제의 집합으로 구성되며, 그 이후에 추가되는 전제는 이 내용과 일치되지 않으면 취소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영어에서의 전제 취소를 잘 설명해주는 이론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어떤 발화가 맥락과 모순되는 전제를 포함하게 되면 단순히 그 전제만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발화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 되므로 한국어에서 이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5.2 전제 투사

어떤 전제를 갖고 있는 문장이 다른 문장의 일부로 들어갈 때 원래 갖고 있던 전제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내포 전제가 모문 전제로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을 전제 투사(presupposition projection) 또는 전제 승계(presupposition inheritance)라고 한다. Langendoen & Savin(1971)은 전체 문장의 전제는 각 부분의 전제의 합이라고 제안했는데, 복문에서의 전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으며, 본 고에서는 전제 투사 문제에 대하여 전제가 승계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그리고 필터의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영어와 한국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5.2.1 승계되는 경우

전제 투사에 있어서 전제가 승계되는 경우를 먼저 보면, Kattunen(1973)은 어떤 전제들이 복문 전체의 전제가 되도록 하는 문장 연산자나, 보문을 취하는 동사들을 ‘hole’이라고 불렀으며, 그 목록에는 사실성 동사(factive verbs), 양상 연산자(modal operators), 부정(negation) 등이 있다고 하였다. 다음에서 복문의 양상구조(modal contexts), 조건문(conditional), 이접문(disjunction)에서 전제가 살아남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다.

첫째, 전제는 ‘possible’, ‘there is a chance that...’ 등과 같은 양상구조에서 살아남는데, 다음 예문 (87)을 보자.

- (87) a. John’s grandfather has three cows.
- b. It’s possible that John’s grandfather has three cows.
- c. John has grandfather.

위 (87a)를 양상구조에 내포시키면 (87b)가 되는데, 양상구조 (87b)도 (87a)와 마찬가지로 (87c)를 전제한다.

이는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 양상구조 예문 (88)을 보자.

- (88) a. 존의 할아버지가 소 세 마리를 갖고 있을 수 있다.
 b. 존은 할아버지가 있다.

위 예문(88a)에서 가능성은 ‘갖고 있다’는 동사에만 영향을 주고, 소유격 구조인 ‘존의 할아버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소유격이 나타내는 전제인 (88b)는 그대로 유지된다.

둘째, 조건절(conditional)을 보자.

- (89) a. Two friends of mine came to my home again .
 b. If two friends of mine came to my home again, I will go out to play basketball.
 c. Two friends of mine had come to my home before.

위 (89a)를 (89b)처럼 조건절에 내포시켜보면, (89a)와 마찬가지로 (89c)를 전제한다. 이에 대한 한국어에서 조건문의 경우를 보자.

- (90) a. 내 친구 두 명이 우리 집에 다시 오면, 나는 밖에 나가서 농구를 할 것이다.
 b. 내 친구 두 명이 전에 우리 집에 왔었다.

위 예문 (90a)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도 조건문 안에 내포된 전제는 전체 문장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즉, 조건문에서 발생하는 가정적인 사항은 친구들이 내 집에 오는지 안 오는지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다시’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제는 조건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접문에서 전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자.

- (91) a. John became a top student in his class again
 b. Either John became a top student in his class again or he will get

a lecture from his mother.

c. John was a top student in his class before.

위 예문 (91a)가 양상구조 (91b)에 내포되었을 때, (91a)가 가지고 있던 전제 (91c)는 (91b)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대한 한국어의 경우를 보자.

(92) a. 존은 반에서 다시 1등을 했다.

b. 존이 반에서 다시 1등을 했거나, 아니면 그는 엄마로부터 잔소리를 들을 것이다.

c. 존은 전에 반에서 1등을 했었다.

한국어의 경우도 ‘다시’에 의해서 가지고 있던 내포문의 전제가 전체 문장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92b)에서도 (92c)를 전제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에서 보문의 전제가 전체 문장으로 승계되는 경우로서 양상구조, 조건문, 이점문에서 보여주는 방식은 한국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2.2 승계되지 못하는 경우

이제 내포문의 전제가 전체 복문에 의해 승계되지 못하는 경우를 보도록 한다. 여기에는 문장의 전제가 등위접속문에서 명시적으로 부정되는 경우와, Horn(1972)이 말한 ‘유보(suspension)’의 경우, 그리고 ‘명제 태도 동사’와 ‘말하기 동사’와 같이 전제를 ‘차단(blocking)’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논하고자 한다.

첫째, 전제가 명시적으로 부정되는 경우를 보자.

(93) a. Susan doesn't regret going up to university because in fact she never did!

b. Susan went up to university.

위 예문 (93a)에서는 ‘regret’에 의해서 유도되는 전제인 (93b)를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뒤의 ‘because’ 절에서 명시적으로 전제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Levinson(2013)은 이처럼 영어에서 변칙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전제를 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위 예문(93a)를 한국어로 표현한 문장을 보자.

- (94) a. *Susan은 대학에 진학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b. Susan은 대학에 진학했다.

영어 문장 (93a)를 한국어로 바꾼 (94a)는 적절한 발화가 되지 못한다. 이는 앞의 전제 취소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94a)의 ‘진학한 것’에서 ‘-ㄴ’관형사형 어미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어간의 내용을 전제해서 (94b)를 전제하는 것인데, 뒤의 후속절에서는 이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후회하다’라는 사실성 동사를 썼는데, 그것에 따라 발생하는 전제를 다시 명시적으로 부정해 버리면 한국어에서는 영어와 달리 그 문장은 애초에 잘못된 발화가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왜 한국어와 달리 영어에서는 전제를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발화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 우선 영어의 경우, (93a)의 선행절을 분리한 아래 예문 (95a)를 보자. (95a)는 Russell에 의하면 아래 (95b)와 (95c)와 같이 두 가지 중의성이 있다.

- (95) a. Susan doesn't regret going up to university.
b. Susan doesn't regret going up to university; she didn't go up to university.
c. Susan went up to university and she doesn't regret it.

즉, (95b)는 전제 자체를 부인하는 넓은 영역의 부정으로서 ‘대학에 진학했다’는 것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고, (95c)는 전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후회하지 않는

다’는 단언만 부인되는 좁은 영역의 부정으로서 ‘대학에 진학했다’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93a)의 선행절을 넓은 영역의 부정인 (95b)로 받아들인다면, 이미 선행절에서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전제를 확실히 부정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의 경우를 보자.

(96) 수잔은 대학에 진학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위 예문(96)에서 부정(negation)은 ‘후회한다’라는 동사에만 연결되고, 진학한 것 자체 즉, 전제되는 내용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94a)의 ‘수잔은 대학에 진학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는 문장은 선행절과 후속절에서 완전히 모순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예문 (97)을 보자.

(97) *Susan regrets going up to university because in fact she never did!

위 예문 (97)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Levinson(2013)은 많은 경우 긍정문에서 명시적으로 전제를 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영어에서 부정문에서는 명시적인 전제의 부정이 가능하지만, 긍정문에서는 전제의 명시적인 부정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볼 때도, 부정문에서는 Russell이 말한 넓은 영역의 부정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93a) 같이 명시적으로 전제를 부정하는 영어의 부정문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러한 넓은 영향권 부정(외적 부정)이 원어민들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수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Horn(1972)이 말한 ‘유보(suspension)’의 경우를 보자.

(98) a. Paul didn't beat his friend again, if indeed he ever did.

b. Paul은 만일 이전에 그렇게 했더라도, 다시는 친구를 때리지 않았다.

위 예문 (98a)에서 ‘if’ 절의 사용은 자연스럽게 화자의 전제에 대한 태도를 유보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조건문에서 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한국어 예문 (98b)에서도 조건문(만일~했더라면, 했더라도)을 씌으로써 영어와 마찬가지로 가정적이 되기 때문에 전제가 유보되면서 승계되지 못한다.

셋째, ‘think, want, believe, imagine, dream’과 같은 명제 태도 동사(verbs of propositional attitude)와, ‘say, tell, mumble, retort’와 같은 말하기 동사(verbs of saying)에서 나타나는 복문 구성 성분들의 전제에 대한 차단(blocking)을 보자.

- (99) a. Mary believed that Kile regrets buying a luxury car.
 a'. Kile bought a luxury car.
 b. Paul said that he quit working out in gym.
 b'. Paul had been working out in gym.

위 예문 (99a)에서 보문은 (99a')를 전제하는데, 전체문장에서 전제 승계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 이유는 보문의 사건은 Mary의 믿음세계 내에서는 ‘참’으로 평가되지만, 발화자의 세계나 실재 세계에서는 전제 승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99b)에서는 단지 Paul이 말한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서 보문의 내용의 참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보문 안에서의 전제가 전체 문장에 승계되지 않는다. Karttunen(1973)은 이러한 명제 태도 동사와 말하기 동사들이 ‘hole’과 대조적으로 하위 문장의 전제가 전체 문장의 전제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plug(마개)’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한국어의 경우를 보자.

- (100) a. Mary는 Kile이 호화로운 차를 산 것을 후회한다고 믿었다.
 a'. Kile은 호화로운 차를 샀다.
 b. Paul은 체육관에서 운동해왔던 것을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b'. Paul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해오고 있었다.

위 예문 (100a)는 ‘Kile이 호화로운 차를 샀는데, Mary는 Kile이 이것을 후회한다고 믿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100a)에서는 ‘차를 산 것’은 전체문장에서도 그대로 전제가 되며, 단지 Kile이 후회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Mary의 믿음 속에서는 참으로 평가되지만 발화자나 실제 세계에서는 전제 승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다. 결국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주동사로 ‘plug(마개)’인 ‘명제 태도 동사(믿다)’를 사용했지만, 내포문의 전제인 ‘차를 산 것’에 대해서는 전체 문장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100b)를 보면, 이는 ‘Paul이 체육관에서 운동해왔던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그만두었다고 말했다’는 것으로서 Paul이 운동을 해왔다는 것은 그대로 전체 문장에서도 그대로 승계된다. 그리고 단지 그것을 그만두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주동사로 ‘plug(마개)’인 ‘말하기 동사(말했다)’를 사용했지만 내포문의 전제인 ‘운동을 해왔던 것’은 전체 문장에 그대로 유지되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 입장에서 영어 문장 (99a)와 (99b)와 같은 문장을 접했을 때 보문의 전제가 전체 문장에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혼동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복문에서 주동사로 명제 태도 동사와 말하기 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영어와 한국어가 다르게 전제 투사가 나타나는 것은, 두 언어 간 통사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영어는 문장 구조가 ‘SVO’ 구조로서 주동사(plug) 뒤에 보문이 오면서, 보문이 그 동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보문 안의 전제가 ‘plug’ 동사로 인해 전체 문장에 승계 여부가 불투명한 반면, 한국어는 ‘SOV’ 구조로 주동사(plug)가 맨 뒤에 오면서 그 주동사는 보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보문의 바로 인접한 동사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문의 전제는 그대로 유지되어서 전체 문장에 승계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승섭(1997)은 한국어의 경우 어느 정도 어순을 자유롭게 바꾸어도 어색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것은 보문이 모문 서술어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한국어에서는 예를 들어 예문 (100a)의 경우, 보문의 위치를 맨 앞으로 바꾸어서 ‘Kile이 호화로운 차를 산 것을, Mary는 Kile이 후회한다고 믿었다’ 라고 하여도 어색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이는 보문이 모문 서술어(믿었다)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100a) 보문 안에서의 전

제는 주동사 ‘plug’(믿었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전체 문장으로 승계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영어에서는 예를 들어 (99a)의 경우 보문을 문장의 맨 앞으로 위치시키면, ‘Kile’s buying a luxury car Mary believed that Kile regrets’가 되어 완전히 비문이 되는 것을 볼 때, 영어에서 보문은 주동사의 지배를 확실히 받고 있고, 따라서 보문의 전제는 주동사인 ‘plug’ (believed)의 영향을 받아 전체 문장으로 승계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2.3 필터(filter)

이제 복문의 조건문(conditionals)과 이접문(disjunctions)에서 보여주는 ‘filters’의 경우를 보자. 앞에서 전제가 이접문과 조건문에서 살아남는 경우를 보았는데, 다음에서는 좀 다른 경우를 볼 수 있다.

우선 조건문을 먼저 보도록 한다.

- (101) a. If Mary stays up all night, she will regret doing it.
 b. Mary will stay up all night.

여기서 (101a)는 후속절만이 사실동사 ‘regret’가 유발하는 (101b)를 전제하고, (101a) 전체 문장은 (101b)를 전제하지 않는다. 후속절의 전제가 ‘If’절에서 언급되었고, 그래서 가정적(hypothetical)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어의 경우를 보자.

- (102) a. Mary가 밤을 샌다면, 그녀는 그것을 후회할 것이다.
 b. Mary는 밤을 썰 것이다.

위 예문 (102a)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후회한다’의 전제가 조건문에서 가정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전제가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건문의 경우 전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03) a. If the Vice-Chancellor invites Simone de Beauvoir to dinner, he'll regret having invited a feminist to dinner.
- b. If the Vice-Chancellor invites the U.S. President to dinner, he'll regret having invited a feminist to his table.
- c. The Vice-Chancellor has invited a feminist to his table.

(Karttunen, 1973)

여기서 (103a)는 'regret'라는 동사가 보문을 갖고 있지만 (103c)를 전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Simone de Beauvoir가 유명한 페미니스트임을 안다면, (103a)에서 'a feminist'를 'Simone de Beauvoir'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고, (103a)에서 특별히 조건문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화자는 부총장이 Simone de Beauvoir를 초대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조건문 (101a)에서 전제가 승계되지 못하는 경우와 같다. 그런데 (103b)를 보자. 똑같은 'regret'가 보문을 갖는 (103b)에서, 미국 대통령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103b)는 (103c)를 전제한다. 후속절에서 전제하는 것이 선행절 즉, 조건절에서 가정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건문에서 믿음 맥락에 따라 전제 유무가 달라진다는 예가 된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아래 예문 (104)를 보자.

- (104) a. 만일 부총장이 Simone de Beauvoir를 저녁에 초대한다면, 그는 페미니스트를 초대했던 것을 후회할 것이다.
- b. 만일 부총장이 미국 대통령을 저녁에 초대한다면, 그는 페미니스트를 초대했던 것을 후회할 것이다.
- c. 부총장은 페미니스트를 저녁에 초대했었다.

우선 앞의 영어의 경우와 동일하게 Simone de Beauvoir가 페미니스트라는 가정 하에 (104a)의 발화를 했을 때 이 발화는 적정할까? 한국어를 사용하는 우리 입장에서 (104a)는 직관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104c)의 전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위 예문 (104a)의 ‘초대했던 것’에서 ‘- ㄴ’ 관형사형 어미로 인해 ‘초대했었다’는 전제가 잠재적으로 발생하는데, 선행 조건절에서 이것이 가정적인 상황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가정적 상황에서는 초대가 후회보다 과거에 일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과거형과 ‘- ㄴ’ 관형사형 어미를 쓰는 것이다. 반면 (104b)에서는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적 상황에 있는 것은 단지 ‘부총장이 미국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고, ‘페미니스트를 초대했었다’는 것은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제가 유발된다. 이처럼 조건문에서 보여주는 전제 태도는 영어와 한국어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편, Karttunen(1973)은 조건문에서 만들어지는 복문에서의 전제 태도와 관련하여 그러한 연결사를 ‘filter’라고 했으며, 이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는 전제를 유지하고, 또 다른 조건 하에서는 전제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는 조건문에서의 여과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05) In a sentence of the form if p then q, (and also, perhaps, in a sentence of the form p & q) the presupposition of the parts will be inherited by the whole unless q presupposes r and p entails r
(Karttunen, 1973)

즉, 조건문의 경우 후속절에서 전제하는 것을 선행절인 ‘If절’에서 함의하고 있지 않다면, 후속절의 전제가 가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제는 복문 전체로 승계된다는 것이다.

둘째, 이접문의 경우를 보자.

(106) Either Mary will not stay up all night, or she will regret doing it.

위 예문 (106)에서 두 번째 절만이 ‘regret’ 동사에 의해서 ‘Mary가 밤을 샌다’는 것이 전제되고, (106) 전체 문장은 이를 전제하지 않는다. 이 경우 후속절에서 전제하고 있는 내용을 선행절에서 그와 반대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후

속절의 전제는 취소되는 것이다.

위 예문 (106)에 대한 한국어의 경우를 보자.

(107) a. Mary가 밤을 새지 않든가, 또는 밤을 샌 것을 후회할 것이다.

b. Mary가 밤을 새지 않든가, 또는 만일 밤을 샌다면 그것을 후회할 것이다.

예문 (107a)는 위 (106)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 것인데, 그 의미를 따져서 정확히 해석해보면 (106)은 (107b)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107b)의 해석으로 받아들일 때 영어와 마찬가지로 ‘후회하다’ 동사로 유발되는 전제는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후속절의 ‘후회하다’의 동사에서 유발되는 ‘밤을 샌다’의 전제가 후속절에서 가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접문에서 전제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승계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08) a. Mary stayed up all night, or she got up late again.

b. Mary had gotten up late before.

위 예문 (108a)의 후속절은 반복어 ‘again’에 의해서 (108b)를 전제하며, 이것은 (108a)의 전체 문장에서도 승계가 된다. 즉, 영어 문장 (106)과 (108)을 비교해 볼 때, 이접문에서는 서로 내용상 모순되는 내용이 제시되면 어느 한 문장이 가지는 전제는 사라지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전제가 전체 문장에 승계되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경우를 보자.

(109) a. Mary가 밤을 샜든가, 또 늦잠을 잤다.

b. 메리는 그 전에 늦잠을 잔 적이 있다.

위 예문 (109a)의 경우도 후속절에서 반복어 ‘또’에 의해서 (109b)의 전제가 유발되는데, 이 전제는 (109a)의 전체 문장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한국어

에서도 이접문 구조에서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는 어느 한 문장이 가지는 전제는 그대로 전체 문장에 승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어나 한국어 모두 이접 구문 ‘A 이거나 B’ 구문에서, 상호 내용상 양립될 수 없는 내용이 제시되면 어느 하나가 가진 원래의 전제는 사라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원래의 전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Karttunen(1973)은 이접문에서의 전제 여과 조건(filtering)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10) In a sentence of the form p or q , the presuppositions of the parts will be inherited by the whole unless q presupposes r and $\sim p$ entails r

(Karttunen, 1973)

즉, 이접문에서 어느 하나의 절에서의 전제가 다른 절에서 부정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의 전제가 전체 문장의 전제로 승계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전제 투사의 문제를 종합해보면, 첫째, 영어에서 부정문의 경우 전제는 모순이나 변칙없이 명시적으로 부인될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되면 모순이 발생하여 애당초 적절하지 못한 발화가 된다. 둘째, 유보(suspension)에서는 영어와 한국어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전제가 차단되는 ‘plug’의 경우 복문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영어와 한국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건문과 이접문에서 보여주는 ‘filter’의 기능은 영어와 한국어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I. 결 론

이상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제의 용법에 대해 영어와 한국어의 경우를 비교해 보았다. 전제는 주어진 맥락을 이용하여 의사소통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추론 과정이며, 언어의 다른 특징인 함의, 함축과 함께 인간 언어의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할아버지께서 오늘 집에 오실거야’라고 말할 때, 이것을 ‘나한테 할아버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 집에 오실거야’라고 한다면 비효율적이고, 간결한 대화가 되지 못한다. 전제가 가지는 이러한 효율성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효과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광고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또한 전제는 앞에서 보았듯이 의미론과 화용론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에 의해 나타나며, 언어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하지만, 변화되는 특징과 맥락에 따라 적절한 발화의 조건으로서 유발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전제는 영어에서 철학자 Frege(1892)가 자연 언어의 지시적 표현에서 지시물의 존재를 전제한다고 지적한 이래, 21세기까지 오랜 기간 계속 연구되어 왔으며, 여러 가지 전제 유형 및 전제 이론이 제시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영어에서의 전제 용법과 한국어의 전제 용법을 비교하고자, 우선 2장에서는 전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두 가지 큰 관점인 의미적 전제와 화용적 전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3장에서는 영어에서의 전제 유발체를, 4장에서는 한국어에서의 전제 유발체를 알아보고 이를 영어와 비교해 보았으며, 5장에서는 전제의 가장 큰 특징인 전제 취소와 전제 투사 문제에 있어서 영어와 한국어의 경우를 제시하고 비교해 보았다.

영어와 한국어에서의 전제 유발체는 크게 의미적 전제와 화용적 전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누었다. 영어에서 의미적 전제 유발체는 다시 어휘적 전제와 통사적 전제 유발체로 나누었고, 어휘적 전제 유발체에서는 사실성 동사와 함축 동사, 상태 변화 동사, 반복어, 판단 동사가 유발하는 전제 유형을 알아보았으며, 통사적 전제 유발체에서는 한정적 기술 표현, 시제절, 분열문, 비교와 대조, 비제한적 관계절, 반사실적 조건문에서 전제가 발생하는 유형을 보았다. 그리고 화용

적인 전제를 유발하는 유형으로 의문문과 명령문에서 전제가 유발되는 것을 보았다. 4장에서는 한국어에서의 전제 유발체와 이를 영어와 비교하였는데, 의미적인 전제를 유발하는 유형은 어휘적 전제와 형태적 전제, 통사적 전제로 나누었으며, 우선 어휘적 전제 유발체로서 사실성 동사, 상태 변화 동사, 반복어에서 전제가 유발되었고, 이를 영어와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형태적 전제 유발체에서는 문법적 특성인 조사와 어미에 의해서 전제가 유발되었고, 이를 영어와 비교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통사적 전제 유발체에서는 분열문과 시간 부사절에서 전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화용적인 전제를 유발하는 유형으로서는 높임법 표현과, 의문문, 명령문에서 전제가 발생하였다.

영어와 한국어의 전제 유형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한국어에서는 문법적 사항인 조사(관형격 조사, 특수조사)와 어미(관형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에 의해서 전제가 유발되는 사항이 있었고, 또한 한국어에서는 높임법 표현이 발달함에 따라 언어를 사용할 때는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이 나 나이가 많고 적음의 전제가 유발된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의미적 전제 유발체에서 세부적으로 볼 때 한국어에서는 사실성 동사 ‘알다’에서 영어와 달리 보문자와 조사의 결합에 따라 전제 유무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었고, 반복어에서 한국어의 경우 ‘또’는 부정문에서 중의성을 갖고 있어서 영어의 ‘again’과 다르게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사’에서는 관형격 조사의 경우 영어의 소유격과 유사하게 전제를 유발하였으며, 특수조사에서 ‘-도/만’은 영어에서 부사 ‘also, only’와 비교될 수 있었다. 그리고 특수조사 ‘-보다/처럼’은 영어에서 비교 구문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서 ‘-처럼’은 두 가지 중의성을 갖고 있어서 영어의 비교 구문(as~as)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또한 하나의 문법적 요소로서 ‘다름’을 나타내는 특수조사 ‘-은/는’은 영어에서는 유사한 기능이 없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ㄴ’ 관형사형 어미가 유발하는 전제는 영어에서 한정 기술 표현과 유사한데, ‘-ㄴ’ 관형사형 어미는 뒤따르는 동사에 따라 반드시 전제가 유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반면, 영어에서는 정관사 ‘the’가 전제 유발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명사형 어미 ‘-음’이 전제를 유발하는데 이는 영어에서는 없는 한국어의 특징이다.

5장에서는 전제 취소와 전제 투사 문제에서 영어와 한국어가 보여주는 특징을

비교해 보았는데, 우선 전제 취소에서는 ‘know’와 한국어 ‘알다’ 동사의 부정문에서 영어와 차이점이 있었고, 맥락에서 전제가 취소되는 경우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맥락과 반대되는 전제 표현을 사용하면 아예 부적절한 발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복문에서 나타나는 전제 투사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어에서는 명시적으로 전제가 부인되면, 영어와 달리 그 발화는 부적절한 발화가 되었으며, 전제가 차단되는 ‘plug’의 경우 영어에서는 명제 태도 동사와 말하기 동사가 사용되면 내포문의 전제가 전체 문장으로 승계되지 못하였지만, 한국어에서는 이와 달리 내포문의 전제가 전체 문장의 전제로 승계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영어와 한국어에서 전제 유발이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우선 한국어에서는 높임법이 발달하여 영어와 달리 사회적 지위나 나이 등과 관련한 전제가 발생하며, 조사나 어미, 보문자와 조사의 결합이 가지는 문법적 특징이 영어와 다르게 존재하고, 통사적 구조가 서로 달라 복문에서 전제 승계 여부가 달라지며, 영어에서는 Russell이 말한 부정의 중의성의 특징이 있어서 전제의 명시적인 취소도 적절한 발화가 될 수 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전제의 차이점을 잘 인식하고 전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함으로써, 두 가지 다른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고, 일상 생활에서 전제를 활용하여 더욱 더 효율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고에서 언급한 전제 유발체 외에 더 많은 전제 유발 요소 들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분석 및 비교 연구는 차후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창운. (1987). 전제 개념과 국어의 전제 분석. 건국 어문학 Vol.11-12, 375-393.
- 김경애. (2012). 영어화용론. 서울: 종합출판 EnG.
- 김현석. (2006). 특수조사의 의미 분석: ‘는, 도, 만’을 중심으로.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금현. (2004). 전제의 유형. 한국어 의미학 14, 223-254
- 孫 昆. (2005). ‘관형형+것’에 대한 한·중 대조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승섭. (1997). 국어 보문의 통사·의미론적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평현. (2014). 국어의미론 강의. 서울: 도서출판 역락.
- 이성범. (2002). 영어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 장춘퇴. (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관형사형 어미의 교육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혜령. (2011). 영어교육을 위한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 Atlas, J. D. & Levinson, S. (1981). *It*-clefts, informativeness and logical form: radical pragmatics (revised standard version). In Cole, *Radical Pragmatics*, 1-61.
- Chomsky, N. (1972). *Studies on Semantics in Generative Grammar*. The Hague: Mouton.
- Fillmore, C.J. (1971). Verbs of judging: an exercise in semantic description. In Fillmore & Langendoen, *Studies in Linguistic Semantics*, 273-290.
- Frege, G. (1892, 1952). On sense and reference. In P.T. Geach and M.Black(eds.) *Translations from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Gottlob Frege*. 56-78.
- Gazdar, G. (1979a). *Pragmatics: Implicature, Presupposition and Logical Form*, New York: Academic Press.
- Gazdar, G. (1979b). A solution to the projection problem. In Oh & Dinneen, *Syntax and semantics II*, 57-89.

- Givon, T. (1982). Logic vs pragmatics. *Journal of Pragmatics* 6, 81-133.
- Halvorsen, P. (1978). *The Syntax and Semantics of Cleft Constructions*. Texas Linguistic Forum 11, Austin: University of Texas, Linguistics Dept.
- Heinamaki, O. (1972). Before. *Proceedings of the Eigh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139-151.
- Karttunen, L. (n.d.) Presuppositional phenomena. Mimeo. Department of Linguistics, University of Texas, Austin.
- Karttunen, L. (1971). Implicative verbs. *Language* 47, 340-358.
- Karttunen, L. (1973). Presuppositions of compound sentences. *Linguistic Inquiry* 4, 169-193.
- Karttunen, L. (1974). Presupposition and linguistic context. *Theoretical Linguistics* 1, 3-44.
- Katz, J. J. (1972). *Semantic Theory*. New York: Harper & Row.
- Keenan, E. L. (1971). Two kinds of presupposition in natural language. In C. J. Fillmore & D. T. Langendoen(eds.) *Studies in Linguistic Semantics*, 45-54.
- Kiparsky, P. & Kiparsky, C. (1971). Fact. In Steinberg & Jakobovits, *Semantics*, 345-369.
- Lakoff, G. (1971). Presupposition and relative well-formedness. In Steinberg & Jakobovits, *Semantics*, 329-340.
- Langendoen, D. T. & Savin, H. B. (1971). The projection problem for presuppositions. In Fillmore & Langendoen, *Studies in Linguistic Semantics*, 55-62.
- Levinson, S. (1983, 201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 J. (1977). *Semantics*, Vols. 1 &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ssell, B. (1905). On denoting. *Mind* 14, 479-493.
- Sellars, W. (1954). Presupposing. *Philosophical Review* 63, 197-215.
- Stalnaker, R. (2002). Common ground. *Linguistics and Philosophy* 25, 701-721.

- Strawson, P. F. (1950). On referring. *Mind* 59, 320-344.
- Strawson, P. F. (1952). *Introduction to Logical Theory*. London: Methuen.
- Wilson, D. (1975). *Presuppositions and Non-Truth Conditional Semantics*.
New York: Academic Press.
- Wilson, D. & Sperber, D. (1979). Ordered entailments: an alternative to presuppositional theories. In Oh & Dinneen, *Syntax and semantics II*, 229-324.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Usage of Presupposition in English and Korean

Lee, In-seon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Prof. Yang, Yong-J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difference of the presupposition usage between English and Korean, i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presupposition features in two languages and furthermore, is to use the presupposition effectively in our everyday life.

In this purpose, Chapter two gives a discussion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esupposition. Chapter three examines the presupposition-triggers in English. The presupposition-triggers a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to semantically trigger the presupposition, the other is to pragmatically trigger it. First, in the semantic-presupposition triggers, factive verbs, implicative verbs, change of state verbs, iteratives, verbs

of judging are presented as lexical presupposition-triggers; definite descriptions, temporal clauses, cleft sentences, implicit clefts with stressed constituents, comparisons and contrasts, 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s, counterfactual conditionals are presented as syntactic presupposition-triggers. Second, in the pragmatic-presupposition triggers, questions and imperatives are presented. Chapter four examines the presupposition-triggers in Korean and compares with those in English. Also the presupposition-triggers a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semantic-presupposition triggers and pragmatic-presupposition triggers. First, in the semantic-presupposition triggers, factive verbs, change of state verbs, and iteratives are presented as lexical presupposition-triggers; particles and gerund final endings as morphological presupposition-triggers; cleft sentences and temporal clauses as syntactic presupposition-triggers. In Korean, morphological presupposition-triggers are especially specific feature which differs from English. Also,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English in factive verb 'know' and iterative. Second, in the pragmatic-presupposition triggers, honorific-rule expressions, questions and imperatives are presented. Honorific-rule expressions are essential components to trigger pragmatic presupposition in Korean and it is the feature that differ from English. Chapter five examines the presupposition defeasibility and projection problem in complex sentences.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English and Korean in denying one's own presupposition and plugs(verbs of propositional attitude, verbs of saying).